



D-2

## 체전 100배 즐기기

&lt;6&gt;전국 시·도 선수단 총감독 출사표

“종합 4위 달성을 개최도시 자금심 살리겠다”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종합득점 5만여점 이상을 획득해 종합4위를 달성, 개최도시 자금심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과 임원진이 훈연 일체가 돼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훈련을 했고, 전력보강이 많이 이뤄져 목표달성을 문제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처장은 특히 “개최도시로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다른 시도 선수들과 우정과 화합을 이루 전국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처장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민족 대축전으로 승화시켜 연대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선의 플레이로 부동의 1위 고수

이이재 서울시체육회



부동의 1위로서 올 해도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7만6천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상 최선의 플레이와 전국체육대회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14년만에 ‘빛고을 광주’에서 펼쳐지는 88회 전국체육대회가 어느 대회보다 내실있고 훌륭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육상·볼링·카누 앞세워 8위 달성

편석우 인천시체육회



지난 4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아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시 위상에 걸맞는 종합 8위를 달성하겠다.

강세종목인 육상, 볼링, 카누 사이클과 복싱, 역도, 씨름 등이 지난해보다 전력이 향상돼 목표 달성을 자신한다.

종목별 정예화 선수로 한 단계 도약

심규화 울산시체육회



이번 체전을 대비해 종목별 특수성에 따라 선발전 및 평가전을 실시해 정예화된 선수를 선발했다. 110만 울산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

금발 종목 육상 16연패 이룰 터

김부희 경기도체육회



전통적인 금발 종목인 육상의 16연패를 의심하지 않는다. 또 7년만에 정상탈환에 나선 세계의 역사 장미란등 역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유도·레슬링도 메달밭이며 타구·정구·테니스의 연승행진도 예상된다. 서울과 1위를 놓고 벅거운 승부가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 경기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2010년 대비 상위권 도약 할 터

박소돌 경남도체육회



2010년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것은 남해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10년 상위권도약을 위한 초석을 쌓겠다. 올 목표는 7년 연속 상위권 달성이다.

11년 연속 상위권 목표 달성 온힘

조현행 충남도체육회



11년 연속 상위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승의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다. 충남 도정의 캐치프레이즈인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충남의 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 그동안 도와준 모든 분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중상위권 달성 ‘강한 강원체육’ 심겠다

문병용 강원도체육회



전년도 종합 7위에 이어 올 대회에서도 중상위권을 목표로 ‘강한 강원체육’을 심도록 하겠다. 2014년 청중에게 힘을 실어 시름에 잡혀있는 300만 도민에 희망을 불어 넣어 2018년 재도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필승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대회 개최지 성공 초석 다질 터”

주동식 전남도체육회



“한자리수 순위를 5년 연속 지켜내 2008년 제 89회 전국체육 대회 개최지로서 성공의 초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식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은 “내·외의 어려움을 딛고 실추된 전남체육의 명예회복을 위해 선수·임원단이 한 마음으로 강도높은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 수상을 자신히다”고 말했다.

주처장은 “내 대진은 불운과 고등부의 전력하강이 전체적인 전남 전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지만 초반 단체종목의 선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주처장은 “지난 4월 전남도민체전때의 불의의 사고를 딛고 심기일전 해 내년 개최지로서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하계 훈련 통해 선수 보강 7위 기대

배수태 부산시체육회



대진운이 불운해 전년도에 비해 전력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하계·동계훈련을 통한 전력보강과 선수·임원들의 필승의 의지가 있어 강원과 7~8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원이 우수선수 영입등을 통해 전력향상이 두드러져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농구·궁도·승마 중심 중위권 지킬 것

김호군 대구시체육회



안정적 중위권 확보를 위해 선수·임원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했고, 농구, 궁도, 승마, 볼링, 근대5종등 상위입상 종목 중심으로 중위권 수성에 온 힘을 쏟았다.

14년만에 치러지는 광주 전국체전이 내실있고, 알찬 성공대회가 되기를 선수단의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

육상·골프·탁구 10위 달성 역할할 것

김석기 대전시체육회



종합득점 3만7천점을 획득해 종합 10위를 목표하겠다. 상위 입상이 기대되는 육상, 역도, 골프, 탁구, 복싱, 레슬링 종목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뒤 제90회 전국체육 대회를 개최하는 개최지로서 운동등 노하우를 배워가도록 하겠다.

스포츠 정신 입각 후회없는 경기로

전종수 전북도체육회



1년간 손에 뜰같은 삶이 딱딱하게 배는 고통속에서 북돋히 최선을 다했고, 그 모든것을 경기장에 쏟아부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겠다. 전력이 예전보다 못할지 모르나 아마추어리즘과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항상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특화종목 육성 2위 입상 기대

조창현 경북도체육회



지난 김천 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어가기 위해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 각 대학별 특화종목 육성을 통해 전력향상을 꾀했다. 또 동·하계 훈련을 통한 경기력 극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상위입상을 기대한다.

3만3천점 획득 12위 목표 자신

김웅기 충북도체육회



3만3천점을 획득, 종합 12위 달성을 위해 뛰겠다. 종합경기력 면에서 지난해 보다 디소 향상됐으며 강화훈련을 마쳐 목표 달성을 자진한다. 체전기간동안 선수들이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태풍 피해 도민들에 희망 줄 것

김정준 제주도체육회



태풍 나리의 피해로 체전 참가하는 선수단의 밭길들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 시름에 빠진 제주도민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도록 하겠다. 타 시·도 선수단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스포츠 맨심에 입각해 최선을 다하겠다.

## 박인비 공동 선수

박세리 2타차 공동 3위

LPGA 롱스드러스 철린지 1R

미루고 미뤘던 한국 선수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다섯번째 우승 전망에 파란 불이 켜졌다. 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덴버 블랙호크골프장(파72·6천212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롱스드러스철린지 1라운드에서 새내기 박인비(19)가 공동 선두에 나섰고 ‘말안나’ 박세리(30.CJ)는 2타차 공동 3위에 올랐다.

명예의 전당 입회라는 커다란 업적은 이뤘지만 올해 한차례 우승에 그친 박세리도 2001년 우승 이후 6년만에 정상 탈환 가능성을 열었다.

박세리는 3번(파5), 4번홀(파3) 연속 보기로 초반은 불안했지만 이후 버디를 5개나 뽑아내며 3언더파 69타를 매력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카리 웹(호주), 스테이시 프라마니수드(미국), 로리 케인(캐나다) 등과 공동 3위에 포진했다.

정일미(35, 기가골프)가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10위에 올랐고 1언더파 71타의 민나은은 공동 13위를 달려 상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흑진주’의 힘찬 티샷

5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코오롱-하나 은행 제50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2라운드에서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이 힘찬 티샷을 하고 있다. 비제이 싱은 이날 2타를 줄여 중간 합계 7언더파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 강진에 베이스볼파크 조성

도암면 17만㎡에 수영장 등 갖춰

전남 강진에 대규모 야구 전지훈련 시설을 갖춘 베이스볼파크가 조성된다.

강진군(군수 황주홍)과 (주)강진베이스볼파크(대표이사 우수창)는 5일 강진군청에서 베이스볼파크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베이스볼파크는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일원 17만㎡에 들어서며 총 사업비 200억원 이

상을 투입해 정규 규격을 갖춘 야구장 6개와 실내 야구연습장,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야구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유스호스텔과 해수사우나, 전문식당가,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카페도 함께 들어선다.

시공은 야구장 전문시설업체인 (주)스포츠테라카가 맡았고 내년 10월 개장 목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정윤균 전남에 첫 금

전국체전 사전경기 사격 더블트랩

정윤균(상무)이 전남에 첫 금총상을 놀렸다.

정윤균은 5일 정북임실 사격장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사격 남자 일반 더블트랩에서 189점을 쏴 한국신

을 기록하며 기분좋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 선수단에 희망을 던졌다.

정윤균이 기록한 189점은 지난 1995년 제35회 봉황기 대회에서 박정한(대구)이 기록한 188점을 1점 경신한 것이다.

장대규(상무)는 이날 사격 남자 일반부스 탠다드권총에서 573점을 쏴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